

kotex-euc에 관하여

김강수

2025년 6월

1 대략

kotex-euc은 2007년에 *ko.TEX*이 처음 제작되던 당시 kotex-utf와 더불어 배포되었던 것으로 “완성형 한글(EUC-KR)” 문자를 식자하는 한글 L^AT_EX 패키지였다.

한글 L^AT_EX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은광희의 H^IL^AT_EX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던 것으로, 거기에 얼마간의 “KTUG화” 한 코드를 추가하였다. (자동조사 관련) 핵심 부분의 코드는 김도현이 작성하였고 김강수가 약간의 보충적 코드를 추가하여 완성하였던 것이다.

2000년대 들어 한글 사용에 있어서 UTF-8 인코딩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종래 EUC-KR 한글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바, dhucs(현 kotex-utf의 전신)가 받아들여져 활용되면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잊혀져갔다.

그후, *ko.TEX*을 CTAN에 등재하면서 kotex-euc는 제외되었다. EUC-KR 또는 UHC 한글에 대하여 말하자면 현재 유니코드 텍 엔진을 위한 한글 패키지(xetexko, luatexko)로써 CP949 한글을 얼마든지 식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패키지는 “완성형 한글”이라는 관점에서도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.

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가 가볍지 않은 바 있어, KTUG 사설저장소에 이 패키지의 코드와 폰트를 유지하고 있는데, 이것은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크다.

2 사용법과 문서

어떤 이유에서든 이 패키지를 사용해보려 한다면 그 사용법을 다음 문서

`texdoc kotexguide`

를 열고 제3부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.

*kotexguide*는 맨처음 작성된 *ko.TEX* 안내문서였으며, 이 가운데 kotex-utf 부분은 CTAN 버전이 별도의 최신 안내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낡은 내용이 되었으나 kotex-euc 관련 부분은 여전히 이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.

이 문서 자체는 그 역사적 의미와 보존이라는 목적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.

3 2025년의 수정

2025년 6월의 수정은 코드의 개선이나 기능의 추가는 전혀 없고, 다만 관리상의 수정이다.

2022년 10월 이후에 L^AT_EX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최신의 T_EX Live 시스템에서 kotex-euc의 자동조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.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.

- 사용법 안내 문서에 자동조사가 동작하게 하려면 hyperref 패키지를 로드하라고 하고 있으나 수정된 버전에서는 hyperref이 아니라 hyperref2008을 로드하여야 한다.
- [autojosa] 옵션이 추가되었고 이것은 hyperref2008을 스스로 로드하여 자동조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.
- 콘솔 메시지 일부를 영어로 바꾸었다. 최근 시스템의 콘솔 인코딩이 UTF-8인 경우가 많아서 콘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.

이를테면,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.

```
\usepackage[euc,autojosa]{kotex-euc}
```

한편, 수정 이전의 파일은 doc/latex/kotex-euc 폴더에 archive.zip으로 보존해두었다.